

나주시 주먹구구 문화재 복원사업 '시끌'



울정삼거리. 도로공사로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다.

나주 금성관 주변과 4대 성문인 복문지 문화재 학술 정밀 발굴조사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나주시 도심이 들쭉거리고 있다. 시는 4대 문과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복원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형 복원'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다.



정도전 선생 유배지 안내판. 오른쪽 아래 초사가 보인다.



울정점이 들어설 서성문 앞. 나주시는 울정삼거리에서 2km 떨어진 이곳에 울정점을 복원할 예정이다.



나주시청 앞 사거리 국도변에 조성된 완사천. 음용이 불가능하고 물이 부족해 빨래조차 할 수 없다.



나주시는 초사 앞 연못조성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관광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약전·약용 형제 헤어진 '울정점'

이별주막 있었던 울정삼거리 아닌 2km 떨어진 서성문 옆 조성 비난

나주 동신대 후문에서 노안 방면으로 100여m 거리에 위치한 울정 삼거리. 조선시대 당시 밤나무가 출지어 있었던 이곳에 나그네들에게 밥과 술을 팔고 숙박하던 울정점(栗亭店)이 있었다.

울정점은 1801년(순조 1) 신유박해때 흑산도와 감진으로 각자 유배를 가는 손암 정약전과 다산 정약용 형제가 마지막 밤을 보냈던 의미있는 곳이다.

시는 최근 손암과 다산 형제의 이별과 슬픔에 얽힌 역사 스토리를 '풍류라도 영산가람길'과 연계해 관광 자원화기 위해 이별주막 울정점 조성사업에 나섰다.

울정점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5억원(국비 3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 나주시 서대동 76번지 시 소유지 187㎡(재무부 지분 60㎡)에 건축면적 80㎡ 규모의 초가 형태로 들어서게 된다.

시는 이곳을 금성관과 향교를 오가는 관광객들에 쉼터로 막걸리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는 울정점을 울정 삼거리가 아닌 2km 떨어진 서성문 앞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어서 역사가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처럼 엉뚱한 곳에 울정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비확보 당시 조성 예정지가 울정 삼거리였으나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오는 2018년까지 실시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 A씨는 "도로공사가 문제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된다"며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읍성내에 조성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고분이고, 엄채문화관이고 문화재 모두 읍성으로 가져올 생각이냐. 이것은 조상묘가 멀다고 마당에다가 이장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 왕건과 장화왕후 버들잎 '완사천'

시청 앞 사거리 국도변 새로 정비 "위치 선정 잘못됐다" 지적 잇따라

나주시 문화재 복원에 대한 아쉬움은 고려 태조 왕건과 장화왕후 오씨 부인이 인연을 맺은 장소로 유명한 나주 완사천(浣紗泉·도 기념물 제93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사가와 주민들은 "나주시청 앞 사거리 국도변에 새로 정비한 완사천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서성문에서 나주천을 건너면 나주고등학교 입구에 조성들로부터 '왕건샘'이라고 불리어 온 석관수 샘이 있는데, 그 샘이 진짜 '완사천'이다"라고 말한다.

조선 중기 선비인 시서 김선(1568~1642)은 '시서유고'에서 "금성산하 경연동에 완사천이 흐르고 그 옆에 샘이 있다"고 기록했다.

여기서 언급한 완사천의 천자는 내 천(川)자를 써서 지금의 나주천이고, '샘'은 샘 천(泉)자를 써서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왕건 샘이라는 것.

시는 최근 나주읍성에 관한 문헌자료들을 분석하면서 고려시대에 관아 터로 추정되는 금성관 위쪽에서 직선거리로 300여m 내에 위치한 왕건 샘이 완사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즉 읍성에서 1km 이상 떨어진 시청 앞 완사천까지 빨래와 물을 길러 누가 다녔겠느냐는 이야기이다.



물이 많아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왕건샘.

민본사상 기를 마련한 정도전 유배지

백동마을 초가집 앞 연못 조성 의미 있지도 않은 조선감영 복원 홍보도

나주 다시면 백동저수지 아래 백동마을. 전봇대에 걸린 유배지 안내판을 따라 농로길 골짜기로 1km쯤 들어가면 삼봉 정도전 유배지가 나온다.

방 하나 마루 포함 4평 남짓한 초가집, 바로 초사(草舍)이다. 언뜻 보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지만 유배지라고 생각하면 초사가 화려하게 느껴진다. 초사는 풀집으로 복원하지 않았지만 초사 앞 연못은 유배에 죄인이 여유롭게 연못을 만들어 지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시 문화재 복원에 대한 의아스러움은 조선감영 복원 발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주시와 상주시는 지난해 11월 '영·호남 협력사업'으로 조선감영(監營=조선시대 각 도의 관청사)가 거처하는 관청을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양 지자체는 올해부터 10년간 1000억원을 투입해 조선감영 및 읍성, 향교, 역사길 등을 복원에 전통문화 도심으로 재생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나주시가 조선감영을 복원한다'고 일제히 도배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나주에는 복원할 조선감영이 없다. 조선 8도에 설치한 감영 중 전라감영은 전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지난 3월 도시재생 방향을 민·관이 찾아보기 위해 청사내에 도시재생 지원센터(센터장 조진상 동신대 교수)를 개소했다.

하지만 센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조차 나주시가 조선감영을 복원한다고 홍보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동서화합 포럼에 참석한 강인구 시장은 "조선감영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동·서 화합 선도모델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시민들은 이리다 나주읍성에 조선감영이 들어서고 고분을 옮겨 놓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나주=손철형기자 yacson@



2015년산 나주배 대미수출 첫선적기 2015. 8. 18(화)

나주배 올해 역대 최대규모 3300t 수출

대미 수출 13.6t 첫 선적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3300t의 나주 배가 해외로 수출된다. 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배 유통센터 수출 선과장에서 올해 생산된 나주배의 첫 대미수출 선적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했다.

이날 미국으로 수출된 배는 나주 원황배 13.6t이다. 시는 올해 나주 배를 미국과 대만, 베트남 등지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역대 최대 3300t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과 배 소비량 내수감소에 따른 돌파구를 수출을 통해 찾고 있다고, 올해를 수출 3000t 초과 달성 원년으로 삼고 2018년까지 5000t까지 늘려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수출 맞춤형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나주배 수출전문단지 200ha를 조성 육성하고, 생산된 배는 국제 우수농산물 관리인증(Global GAP)을 취득할 예정이다.

시는 명품 나주배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주배 원예농협 등 수출 경영체에 수출용 포장재 제작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나주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현지인 소비확대와 판매촉진을 위한 해외 현지시장 판촉행사 추진과 함께 유럽과 아랍 국가까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출농가 및 수출 기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표준 물류비의 14%이던 수출 물류비를 올해부터 20%로 늘려 지원한다.

/나주=손철형기자 yacson@

나주시 국비 확보 위한 정책간담회

국회의원·시의원 등 참여

나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이화실에서 신정훈 국회의원과 시의회, 시 관청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한편 미반영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부대시설 유지계획 ▲목 문화 예술단 설치 ▲혁신도시 초·중·고 활성화 대책과 ▲나주역사 시설개선 등 나주역 활성화 방안 ▲영산테마파크 활성화 계획 등 일반 현안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연관기관에 대한 정보를 신

속히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고교생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마이스터고 설립 등의 전문 인력 양성대책과 공동 혁신도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고교 공동학군제 시행을 위한 노력을 강조

했다. 또 시의원은 ▲KTIX 특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고속과 시외버스 등의 연계교통망 구축과 함께 나주역의 종합 환승센터 역할 강화 ▲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영산테마파크 활성화와 영산포지역 활성화 관련사업 발굴 등을 주문했다.

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최종심의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 정무안 제출 등 국회 의결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국회의원, 시의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앞으로의 금융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당신에게 딱 맞는 대출 상품이 필요할때!

북광주신협 572-8167

<h3>아파트 담보대출 (특별금리상당)</h3> <p>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p>	<h3>상가 담보대출</h3> <p>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대출한도: 최고 50억</p>	<h3>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h3> <p>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p>	<p>문흥본점 266-4150</p> <p>양산지점 573-4150</p>
<h3>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h3> <p>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p>	<h3>자영업자(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h3> <p>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 한도 7천만원</p>	<h3>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h3> <p>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p>	<p>운암지점 528-4150</p> <p>블루밍지점 513-4150</p> <p>매곡지점 572-4150</p> <p>첨단지점 576-4150</p>